

연말 '선물' 같은 우리가락 속으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12일 예술의전당 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 소리꾼 이희문 등 출연

남도음악을 기반으로 전통예술의 진수를 선사해 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아 브랜드 작품 연주, 종장축제 폐막공연, 아차제 재연 등으로 국악관현악의 비전을 제시해 왔다. 연말연시를 맞아 국악관현악단이 전통예술의 신명을 '선물'처럼 건네는 시간을 마련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이 송년음악회 '선물'을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JTBC 풍류대장에 출연했던 임재현, 제16회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종합부문)을 받은 소리꾼 이희문 등 차세대 국악계를 이끌어갈 명인 명창들이 무대에 오른다.

막은 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위촉 초연곡 '불의 춤'이 울린다. 이정호가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무곡으로 작은 움직임이 고조돼 정열적인 춤으로 발현된다. 실험적인 국악 관현악 법과 음 배치, 변화무쌍한 리듬감으로 낯선 감각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활의 노래'는 김준희의 해금 선율을 실린다. 관현악의 웅장함 속에서 해금의 화려한 주법을 제시하는 작품이며 섬세한 독주, 활을 활용하는 기교가 전면에 드러난다.

조선시대 궁중 무용이자 순조 때 효명세자가 순원왕후의 40세 생일을 기념해 만든 '춘앵무'도 레퍼토리에 있다. 봄을 알리는 꼬꼬리에 영감을 받아 우아한 모습을 담아낸 궁중무용으로 1923년 순종 황제 탄신 50주년 경축연에서 시연된 바 있다. 최성희의 춤사위에 실리며 편곡에 고만석.

이은비는 국악가요 '난감하네'로 관객들을 만난다.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간을 구하러 욱지로 나아가는 별주부 마음을 신세대 감성에 맞춰 코믹하게 재구성했다.

'홍보가' 눈대목으로 꼽히는 '박 타는 대목'에 신나는 선율, 리듬을 입힌 국악가요 '시리령 실근'도 있다. 박을 타면서 돈과 쌀이 흘러넘치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듣는 이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JTBC 풍류대장에서 이름을 알린 임재현과 마일즈밴드는 국악가요 '살풀이'와 '와'를 선사한다. 그중 박승희 지휘자가 2001년 작곡한 '살풀이'는 국악의 한과 양악의 리드미컬한 맛이 어우러진 곡이다.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이정현의 '와(1999)'는 변화도의 뒤틀린 사랑 이야기인 '춘향가'와 크로스오버해 동명 국악관현악으로 재탄생했다. 해금 연주에 김준희.



이희문



임재현

소리꾼 김산옥은 풍물놀이 중 꽃이라 불리는 '상모'로 관객들을 만난다. 흥겨운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고갯짓하는 모습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국악가요 'Hit me + 제비노정기' 또한 볼거리. 이 곡은 2004년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으로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을 새롭게 해석했다. 느린 서주로 시작해 자진모리와 터널림(10/8박자 장단)에 맞춰 제비의 여정을 노래한다.

대미는 '이희문 프로젝트'로 대학로를 누비고 있는 이희문이 장식한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이씨는 2015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4년 KBS 국악대상 민요상을 비롯해 제1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경기민요 소리꾼이다.



박승희 지휘자.

이 씨의 테마송 '신장거리'에 '액맥이타령'을 더해 메들리 형식으로 구성된 국악가요 '어허구자', 경기잡가 장기타령에 레게 음악과 춤을 결합한 '나리소사'가 울려 퍼진다.

이외 경기민요 사발가를 재해석한 대표 타이틀곡으로 민요에 디스코와 펑크 리듬을 결합한 '허송세월아라'가 우리 신명을 선사한다.

박승희 지휘자는 "이번 봄부터 가을까지 신춘음

악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폼격 있는 국악관현악'을 연주하는 데 지중했다면, 이번 송년음악회는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린다는 의도에 집중했다"며 "국악계를 대표하는 젊은 예인들이 펼치는 '경연 같은 무대'에서 그들의 열정, 신명을 모두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R석 3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폭의 그림에서 차향기가 난다

이지연 '차 한잔 그림 한폭' 전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6일까지 차 관련 그림책도 출간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선암사에서 스님이 내 주신 차를 처음 마셨다. 그때 드는 생각은 '어른들은 이 맛있는 차를 왜 마시지?' 라는 의문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차는 운명처럼 삶을 견인했다. 이지연 작가는 차농사를 짓는 한편 그림을 그린다. 하늘 아래 고달프지 않는 농사는 없는데 차농사도 마찬가지다.

이지연 작가가 차와 차농사를 모티브로 한 전시를 연다.

갤러리 생각상자(관장 주홍)에서 '차 한잔 그림 한폭'을 주제로 6일까지 열리는 초대전은 차처럼 맑은 그림과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전시다.

처음 전시를 갖는다는 이 작가는 통화에서 "3년간 모두 50여 점을 그렸는데 전시장에는 30여 작품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수묵담채라는 단순한 기법으로 담백하게 그린 작품에서는 깊은 차향이 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햇빛과 바람, 물, 공기 등 4계의 자연도 느껴진다.

원래 그는 미대(국민대)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부터 붓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기에" 미술계통에서 일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차와 관련한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시막은 '한국제다'라는 차 회사와, '호남다원'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과 장성, 해남에서 차밭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 작가가 또한 차와 관련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차밭 일을 한 지 벌써 30년이다 된다"며 "한 10년 간은 차밭 일에만 매달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로 많이 힘들었다. 무엇인가 변곡점이 필요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크로키부터 시작해 다양한 장르를 접했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수묵화를 다시 시작하



'차 한잔 그림 한폭'

게 됐다.

"수묵화는 제가 어렸을 때 붓글씨를 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먹향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먹이나 수묵화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죠. 쓰레기가 나오거나 유해 환경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어서요."

그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소재와 작업 방식이 수묵화의 장점이라고 했다. "차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이 제일 소중한"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터라, 다른 장르보다 수묵화가 좋다.

차 농사도 오래 하다보니까 적성에 맞았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먹고 사는 것과 연계된 일은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숨이 트여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작가에게 수묵화를 그리는 일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특별하다. 차밭 농사도 만만치 않지만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라 다른 일에 비해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

"관광객과 농부와는 확연한 시각 차이가 있지요. '일인 것'과 '일이 아닌 것'의 차이이죠. 그러나 차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을 통해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차밭을 형상화한 그림에선 초록의 숨결이 물씬 배어나온다. 연초록 진초록 사이로 열망 하늘도 보이고, 흘러가는 구름도 보인다. 작품의 배면에는 수고의 땀과 아울러 사계절의 정취도 드러워져 있다. 전시와 맞물려 작가는 그림책도 발간한다. 개막일에 맞춰 전시 주제와 동일한 책이 나올 예정이다.

그는 "우리나라 차에 대한 그림책이 거의 드물다"며 "아이들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 차에 대한 그림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차를 외국에 알리기 싶은 마음도 그림책을 펴내게 된 이유"라며 "차밭의 사계절 풍경을 담은 책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우리 차를 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홍 관장은 "차밭의 사계절, 그 한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차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자연이 품고 있던 생명력 가득한 '초록'으로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을 들고 다가가는 것"이라며 "작품에는 정성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차농사, 자연이 주는 마법 같은 시간의 변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투영돼 있다"고 의미를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60년 고려인의 이주 역사 뮤지컬로

고려인마을·ACC '나는 고려인이다' 오늘 광산문예회관

구소련은 20세기 초 소수민족을 척박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려인이 숨겨져나 다치는 등 비극을 겪었다.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광주 고려인마을이 기념 뮤지컬을 선보인다. 4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나는 고려인이다'가 그것. 작품은 고려인마을 산하 인문사회연구소장 최영화 교수(호남대)와 ACC가 2017년 고려인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해 공동 제작했다.

강제 이주는 소련 극동 지방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그중 연해주를 중심으로 고려인들이 정착했던 모습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고통의 역사, 이후 국내 입국한 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터전을 잡는 과정을 순서대로 상연한다.

극 중 강제 이주의 아픔은 민족의 한과 기상을 투영한 '아리랑'을 모티브로 표현된다. 3부에 걸쳐 각각 '사라진 아리랑', '일어서는 아리랑', '기억하는 아리랑'으로 구성된다.

작품은 한인 극작가와 조영희 시인의 한글문학 작품, 전통 노래 및 구전민요 등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서사를 전달한다. 고려인 관련 아카이브를 사료 삼아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할 예정이다.

최영화 소장은 "나는 고려인이다"는 2017년 초연 이후 2021년 중앙아시아 순회공연 등을 통해 고려인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작품이다"며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정착해 있는 7000여 명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동질감이라는 주제가 관객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관람, 광산문예회관 누리집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앗! 우리나라 도깨비가 이렇다고?

ACC·연희공방 음마쟁쟁이 '연희도깨비' 7~8일 어린이극장

남사당놀이 가운데 꼭두각시놀음으로 통하는 '탈미'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전통 인형극이다. 조선에서 온 인형 탈미를 활용한 창작 인형극 한 판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과 연희공방 음마쟁쟁이 국악인형극 '연희도깨비'〈사진〉을 오는 7~8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펼친다. (7일 오전 11시, 오후 3시, 8일 오후 2시 상연)

마음씨 고운 동생 '홍덕이'는 어느 날 욕심쟁이 형 '늘새'의 부탁을 받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 그곳에서 개암나무를 베려던 순간 불속 나타난 다람쥐의 부탁을 받고 나무를 베지 못한 채 떨어진 열매만 챙긴다.

"우르릉 광광!"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홍덕이는 오래된 초가집에 몸을 숨긴다. 어디선가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면서 나타난 도깨비를 보고 홍덕이는 아연실색이 되는데...

공연은 남사당놀이 일환인 대접들리기(배나놀이), 탈놀음(덧보기), 꼭두각시놀음(탈미)에 피리, 태평소 등 국악기 선율이 어우러진다.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션 맵핑과 스토리텔링 박침



지의 해설도 몰입감을 더한다. 흥덕 역에 김성대, 늘새 역에 방성혁 배우가 출연하며 김용훈(장독대 도깨비), 장우천(빚자루 도깨비), 김지훈(박침지) 등이 함께한다.

읍대진 예술감독은 "일본의 '오니'와 혼용되어 온 우리나라 도깨비의 모습을 바로잡고, 흥 많은 도깨비만의 모습을 유희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작품이다"며 "도깨비와 개암나무, '홍부와 늘부' 등 전래동화를 각색해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석 1만 5000원(비정석), ACC재단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완경 예찬' 경숙씨, 다시 한번 트위스트

연극 소모임 시나페 6~7일 예술극장 통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월경통이 심해 '저주받은 몸'이라 불리던 경숙.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지옥문'이 괴롭기만 하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두 달씩 건너뛰던 월경이 몇 달째 찾아오지 않자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진다.

다 컸다고 자신을 무시하는 딸과 비판적인 말만 건네는 남편으로 인해 경숙은 집을 나가 '생리통 삼총사'인 친구들을 만난다. 민자, 선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뒤 홀로 남은 경숙 앞에 '월경의 신'이 다시 찾아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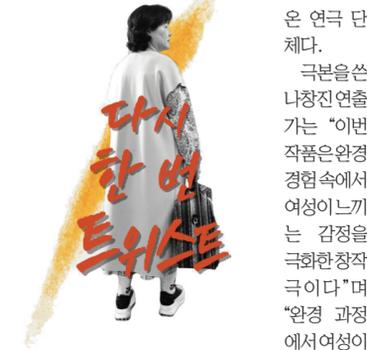
생리 없는 인생에 대해 상상하는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여성민우회 연극 소모임 시나페가 오는 6~7일 예술극장 통에서 선보이는 '다시 한

번 트위스트'가 그것.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6시)

월경신이 찾아온 뒤 펼쳐지는 내용은 주인공 경숙이 "생리 없는 인생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근사하고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을 선사한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출연 배우들과 함께 30분간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정지윤, 김경은을 비롯해 수연, 마중물, 도담 배우(활동명)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시나페'는 2008년 진즉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아주 특별한 용기'를 시작으로 성폭력 및 성평등 노동 문제, 여성의 몸 이야기 등을 다뤄



은 연극 단체다.

극본을 쓴 나창진 연출가는 "이번 작품은 환경경험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감정을 극화한 창작극이다"며 "환경 과정에서 여성이 주변 지인 및 가족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낼 것이다"고 했다.

무료 공연(감동후불제), QR코드 또는 링크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